

# 프랑스 서점가 휩쓰는 '혁명 바람'

## 혁명 200주년 맞아 관련서적 홍수

朱燮日

세계일보 논설위원

### 축제분위기의 파리, 서점마다 '혁명코너'

"파리는 항상 축제다"라고 장 콕토는 말했지만, 아마도 오늘과 같은 대축제는 지난날에 없었을 것이다. 현대 프랑스의 출발점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의 원년인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계와 서점가에도 이러한 축제분위기가 넘쳐흐르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혁명관계 책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카세트까지 대량으로 쏟아져나와 마치 파리와 프랑스전역이 혁명적 분위기에 휩싸이고 들뜬 듯한 분위기이다. 솔본느대학 주변의 4층짜리 대형서점 조셉 지베르서점에는 2층에 '혁명코너'를 신설하여 '혁명을 판다'. 대부분의 서점들이 쇼윈도에 신간 혁명서적을 보기 좋게 배열하고 독서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혁명코너마다 혁명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옛조상들이 오늘의 민주체제 건설을 위해 어떻게 싸우고 고민하고 죽어갔으며 그들이 후세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호기심으로 눈빛을 번득이는 책벌레들로 붐비고 있다.

일본과 함께 독서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라고 하지만, 혁명서적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 어느 책을 골라야 할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지난 5월말까지 368종의 혁명서적들이 출판되었으며 올해말까지 1천종이 넘을 것이라고 하니, 가히 혁명서적의 홍수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또한 국립도서관이 비디오 카세트에 담은 혁명의 이미지만도 판화 1만2천, 2천여의 스케치, 훈장과 장식·동전 1천여점 등 모두 1만5천점의 자료들 속에 3만8천여의 장면들이 담겨졌다고 한다.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혁명책들만도 벌써 31종이 나왔으며, 앞으로 103종이 출판될 것인 소식이다.

### 혁명의 의의 재조명작업 활발

그래서 서점가는 유례없는 혁명바람과 함께 호황에 즐거운 비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출판계는 아직 혁명을 팔아 돈더미에 올라앉았다는 뉴스를 내놓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과연 어느 책이 얼마나 팔리느냐의 결판은 내년 봄에나 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술서적들을 골라 혁명서적들의 경향을 알아보고 2백년전의 프랑스혁명이 어떻게 해석되고 조명되고 있는지 말해보기로 한다.

###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맞아

### 올해 말까지 프랑스 서점가에는

### 모두 1천여종의 혁명관계 서적이

### 선보일 예정이다.

### 전문학자들을 위한 연구서에서부터

### 어린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책을 골라야 할지

###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는 알베르 소불의 「프랑스혁명사사전」(*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이 꼽힌다. 이 사전은 솔본느대학 프랑스혁명사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파 중의 거목 소불의 필생의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몇해전 그가 사망한 후 장 르네 쉬라토교수가 이 작업을 계승하여 오는 7월에는 서점가에 선보일 것이라 한다. 비록 사전이지만 혁명의 단계와 사건전개에 대한 기술과 해석은 물론, 사상·경제·사회 등의 새로운 해석이 기대되는 혁명사의 집대성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대학출판사가 내놓을 이 사전은 총 1,184쪽으로 최신 연구논문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소불의 계승자로 현재 솔본느대학 프랑스혁명사 강좌주임, 혁명사연구소장, 2백주년기념 학술위원장을 겸한 미셸 보벨교수의 작업은 다양하고도 화려하다. 지난 5월하순 서울의 프랑스혁명2백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프랑스혁명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란 논문을 발표했고, 서울대에서도 두시간에 걸쳐 「혁명적 부르주아지와 민중운동」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바 있는 그의 연구업적들은 프랑스혁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분석, 검증, 해석한 연구로 돋보인다. 그는 경제·사회·사상사의 영역을 보다 확대,心性史, 풍속사, 종교사 등에까지 손대어 탁월한 업적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혁명의 프랑스국가」(*L'Etat de la France Pendant la Révolution*)는 유수의 학자들이 쓴 연구업적들을 모아 보벨교수가 편집한 논문집이다. 라 데쿠베르트출판사 568쪽으로 된 이 책은 18세기 프랑스사회의 파노라마를



프랑스 대혁명 연구의 명저로 꼽히고 있는 책들

총체적으로 들여내, 혁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했다. 최근 그가 내놓은 최대의 걸작은 「프랑스혁명, 이미지들과 이야기」(*La Révolution française, images et récit*). 이 책은 판화와 스케치 등 이미지를 충동원하여 그림으로 혁명의 진전을 설명하면서 각단계, 사건마다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깊이있는 해석을 가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이성의 모험들」(*Les Aventures de la Raison*)은 지난 5월 벨롱사가 낸 220쪽의 소책자로, 전반이 보벨교수와 튀지에교수의 대담으로 짜여 있다. 제2부는 세계가 프랑스혁명을 어떻게 보았는지의 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끝으로 이 혁명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요약해 싣고 있다.

수정주의의 기수 프랑수아튀레교수도 많은 연구업적들을 출판해내 수정주의파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프랑스혁명의 비평사전」(*Dictionnaire Cr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이 최근에 출판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듯이 비평적 시각에서 혁명을 재조명했다는 것이다. 프라마리옹사가 낸 이 사전은 32쪽의 컬러화보들을 포함, 모두 1,128쪽의 대작으로,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 바티르」는 "어제는 토크빌과 퀴네가 있었다. 오늘에는 이 사전을 읽어야 한다"는 호평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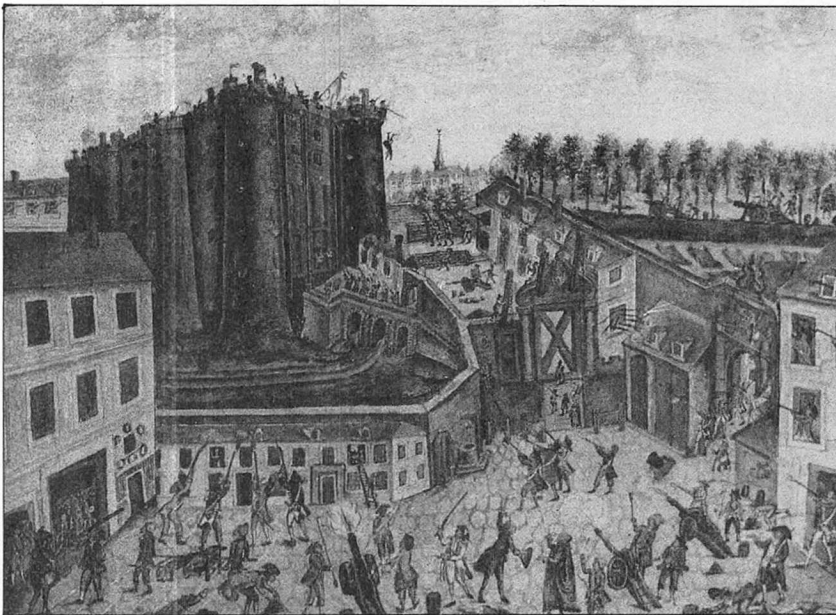
그가 편집한 논문집 「프랑스혁명의 유산」(*L'Héritag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감옥 함락이 개막한 근대민주주의의 전통을 탐색하고 있다. 아세트출판사 300쪽의 이 책은 특히 프랑스혁명이 19~20세기에 걸쳐 세계각국의 정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지·간접으로 끼쳤는지를 분석해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동료인 모나 오주 프교수도 「대혁명시론」(*Essais sur la Révolution*)을 갈리마르사에서 오는 10월에 출판할 예정인데, 여론, 정보, 새로운 인간형, 박애의 사상 등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한다.

### 혁명과 여성문제도 부각

혁명과 여성의 문제도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사실 1789년 10월 4일 파리 주부들의 빵시위가 루이16세일가를 베르사이유궁으로부터 파리지내 튀리성으로 옮기게 했다. 이렇게 하여 국왕이 파리의 혁명적 시민의 감시하에 들어갔던 것이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느냐의 여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논의된 것이 이때였다. 로베스피에르가 여성투표권 찬성연설을 했으나 호응이 없어 실패한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최근 스토크사가 낸 「혁명의 여성」(*La Femme au Temps de la Révolution*)은 카테린느 마랑 푸케여사의 오랜 연구결과로서, 당시 여성의 실상과 여자들이 왜, 어떻게 혁명에 가담, 정치활동을 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혁명은 여성이 크게 기여한 문화혁명이었다고 규정한 「여자들, 문화 그리고 혁명」(*Femmes, Culture et Révolution*) (한스 크리스찬 할텐 지음, 500쪽)이 지난 5월 여성출판사에서, 혁명직후 갖태어난 민주주의가 性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추구해 본 「이성의 뮤즈」(*Muse de la Raison*)가 쟈비에르 프레스의 연구업적으로 아리아나사가 각각 출판했다. 특히 230쪽의 후자는 콩스탕·사름, 콩도르세, 스탕달, 푸리에, 마담 드 스타엘, 카마니 등 당대의 저명한 남녀 철학자·문



대혁명 2백주년을 맞아 프랑스 출판계에도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은 1789년 7월 14일, 부패하고 잔혹한 王政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감옥이 분노한 시민들과 혁명군에 의해 함락되는 모습.

호·의사들이 여성의 처우문제에 관한 1801년의 대논쟁을 분석했다. 性的 평등에 관한 혁명기 남성들의 연설을 분석한 「남자들의 말들」(*Paroles d'hommes*, 1790~1793, 엘리자베스 바탕테르 지음, 192쪽, POL사)과 프랑스혁명이 어떻게 독일여성의 혁명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했는지를 연구한 「프랑스혁명을 쓰다」(*Ecrire la Révolution Française*, 마리크레루크 드말르 지음, 300쪽, 아리에나사) 등도 혁명기의 여성연구서로 호평을 받는다.

프랑스혁명은 군주의 전횡으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확고하게 갖게 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동원한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발명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발전이 전례없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발명의 유품들은 지금 비레트과학박물관에서 혁명2백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시중이지만, 이 방면의 연구도 적지 않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석학들」(1789, *Les Savants en Révolution*)은 왜 혁명이 발명과 기술혁신을 촉진시켰는지를 연구했고(니콜 동브르 지음, 168쪽, 칼망제비사), 「새권력의 탄생, 프랑스의 학문과 석학들」(*Naissance d'un Nouveau Pouvoir: Sciences et Savants en France*, 1793~1825)은 혁명프랑스를 학자들이 왜, 어떻게 총동원하여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면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켰는지를 따지고 있다(장 동브르 지음, 480쪽, 파이요사). 프랑스기상대가 낸 「철학자와 석학들의 기상학」(*La Météorologie des Philosophes et des Savants*, 30쪽)이란 소책자는 계몽사상의 자연관이 어떻게 기상과 우주관측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해준다.

혁명기의 인물연구도 史家들의 집요한 노력

으로 쏟아져 나왔다. 알베르 소볼 사후 원고 정리끝에 햇빛을 본 「혁명가들의 초상」(*Portrait de Révolutionnaires*)은 민중신부 그레고와르, 순결성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 바스티유감옥 함락의 기폭제역 카미유 뒤몰랭, 민중생존권수호자 생 쥐스트, 최초의 사회주의혁명가 바뵈프 등 혁명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혁명적 정치가들의 인간성을 부각시킨 명저로 평가된다(300쪽, 에디송 소시알사). 「질풍노도의 시대: 여성귀족들, 여성부르주아들, 여성농민들은 말한다」(*Le Temps des Orages; Aristocrates, Bourgeoises et Baysans Racontent*)는 혁명에 참가한 20명의 여성들의 활약상을 소개했다(마릴린 아롬 지음, 310쪽, 마랑 셀사).

#### 혁명기의 인물연구도 속속 출간

이외에도 베르나르 케노의 「공안위원회 회원사전」(*Dictionnaire des Membres du Comité Salut Public*, 타랑디에르사, 300쪽, 10월 출간예정), 르네 퐁비에이유의 「바르나브와 프랑스혁명」(*Barnave et la Révolution*, 450쪽 그레나사, 5월 출판), 테러공포시대 종말 불과 2일 전에 단두대 처형을 받은 사연이 기구한 「앙드레 세니에의 마지막 밤」(*La Dernière Nuit d'André Chénier*, 레이몽 장 지음, 알뱅 미셀사, 224쪽, 4월 출판), 장 튀라프의 「오슈장군, 귀족민중」(*Hoche. Un Sans-Culotte Aristocrate*, 128쪽, 유로코르사), 루이16세의 일대기인 「프랑스를 만들었던 임금들, 루이16세」(조르주 보르도노브 지음, 320쪽, 마라부사), 앙드레 카스트로의 「마리 앙트와네트」(380쪽, 페랭사), 하이티섬의 노예출신 혁명지도자 「투스앵 루베트튀르의 일생」(쉴세 지음, 480쪽, 카르타라사), 혁명가

와 반혁명밀정의 두개의 얼굴을 가졌던 미라보 백작의 전기들, 「아버지 미라보」(*Mirabeau Père*, 300쪽, 타랑디에르사)와 「미라보의 총검」(*La Baïonnette de Mirabeau*, 미셀 뒤라푸르 지음, 450쪽, 라테사) 등이 서점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프랑스의 유력신문 「르 몽드」지가 대혁명2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증보판인 「프랑스혁명의 르 몽드」를 발행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신문판대에서 날개돋힌 듯 팔리는 이 증보판은 컬러판으로 제1호에 '국왕만세!'라는 제목 밑에 루이16세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제2호에는 미라보백작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라보는 혁명초기에 맹렬한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여 그의 시체가 위인신전인 팡테옹에 묻히는 영광을 안았다가 루이16세의 비밀 금고 속에서 국왕과 밀통한 편지들이 발각되자마자 반혁명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파리 남쪽 교외의 사형수들의 무덤에 버려졌는데, 「르 몽드」는 정통파의 미셀 보벨교수와 수정주의파의 푸레교수가 오늘날 그를 복권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 정통파·수정주의파의 논쟁도

또한 「르 몽드」지는 보벨교수와 푸레교수의 논쟁을 대대적으로 취급했다. 보벨은 "아직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푸레는 "혁명은 종결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정통파·수정주의파의 논쟁은 혁명해석에도 시각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현대사회를 보는 관점조차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이들의 논쟁은 오는 7월5일부터 1주일간 솔본느대학에서 열리는 '프랑스혁명 2백주년기념 세계학술대회'에서도 계속될 것 같아 벌써부터 세계학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다. 3백여명의 세계적인 혁명사학자들이 이 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된 논문들이 책으로 묶여져 나올 것이다.

특히 1백만쪽에 달하는 혁명기간의 문서집이 영국 옥스포드의 펠가몬 프레스사에서 출판돼 혁명연구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자료집은 서울대학교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앞으로는 서울에서 프랑스혁명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프랑스혁명을 위한 서가는 아직 빈약하기만 하다. 조르주 르페브르의

「프랑스혁명, 1789년」이 서울대 서양사학과 민석홍교수 역(을유문화사, 1976)으로 나와 있고,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마티에의 「프랑스혁명」(김종철 역, 창비사)과 소볼의 「프랑스대혁명」(최갑수 역, 두레사)이 서점에 등장했다. 1987년에는 일월서각이 2백주년기념문고를 10권 선정했으나 출간이 부진하다. 2년전 미셀 보벨의 「왕정의 몰락」(주섭일·최갑수 공역, 1987)과 필자의 파리 제13대학의 DES(고등연구 학위)논문 번역한 「한말변혁운동과 프랑스혁명」(주섭일 지음, 일월서각, 1987)이 나왔을 뿐이다. 현재 도쿄빌의 「구체제와 혁명」이 일월서각에서 인쇄중인데, 6월말쯤에는 서점에 선보일 예정이며, 프랑스혁명 이해의 고전인 다니엘 모르네의 역작 「프랑스혁명의 지적 기원」을 지금 서울사대 불문과 광광수교수가 번역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출간될 예정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프랑스혁명연구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언어장벽과 오랫동안 혁명을 금기시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프랑스의 거의 모든 연구업자들이 번역되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쓴 프랑스혁명사가 여러권 나와 있고, 명치유신과의 비교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사 연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자유와 평등을 조화하는 민주화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많은 프랑스혁명연구서들을 번역해내야 할 것이다.

#### 알림

### 기사 바로잡습니다

▲지난 제41호(89. 5. 30) 표지사진의 주인공 '강원도 양양군 임호국민학교 월촌분교' (3면 「표지의 말」 참조)는 '월천분교'로 바로 잡습니다.

▲제42호(89. 6. 5)에 실린 李重漢씨의 글 「세계의 추천도서-美國의 이미지와 미국' 알기」 기사 중 29쪽 셋째段 제20행부터 29행까지 ('시도한 책이다'에서 '프레드릭 터너'까지) 열줄은 둘째段 제19행(...평가적 체계화를) 다음에 이어집니다. 필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